‘광주형 건강돌봄’ 생활밀착형 공공의료망 구축 속도

동·서구 통합센터 334명 정기 등록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전국 첫선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선도 모델

광주시가 지역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혁신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등 다층적인 공공의료망이 시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서구 통합건강센터에 총 334명(10월31일 기준)이 등록해 정기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1%인 235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통합건강센터가 고령층의 ‘건강 돌보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동구와 서구에서 통합건강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보건소·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통합건강센터 총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평가를 통해 타 자치구까지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건강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개별 운영되던 건강 서비스를 시민이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각 센터에서는 기초 건강검사와 생활습관 설문을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통합건강평가, 치매 검진, 정신건강, 금연, 고혈압·당뇨 관리, 영양, 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10월31일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하나인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문을 열었다.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에서는 의료적 처방 외에 필요한 사회적 처방(함께 운동, 일상 대화, 관계 형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형 응급의료 시스템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은 12월 중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실 병상 현황, 의료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광주시가 자체 개발했다.

응급의료플랫폼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진 간 실시간 소통·전원 정보 공유를 지원해 응급대응 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이용 환자가 6만명을 돌파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진료비도 응급실보다 낮아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여수·군산 등 타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광주형 건강돌봄 모델을 꾸준히 확대해 ‘어디서나, 누구나, 건강하게’를 실현하는 건강활력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며 “시민 누구나 아플 때는 마음 편히 진료받으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에 차세대 한류문화 전략적 거점 구축해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토론회

2천500억 투입 지식산업센터 등 건립

수도권 집중 콘텐츠 산업 분산 필요

사업비 2천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2천500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장 펀드 조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역)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목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광주를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은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의 미래비전’ 발제를 통해 “최근 AI기술이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콘텐츠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기술중심 콘텐츠 융합 실증도시’를 구축해 온 광주가 K-콘텐츠 테크타운과 함께 ‘AI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규 ㈜상화 부사장은 ‘기술융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 발제에서 자사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콘텐츠산업의 무한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재원 ㈜텍스터스튜디오 소장은 ‘AI시대의 콘텐츠산업과 창작환경의 변화’ 주제발표에서 “광주에는 AI콘텐츠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돼 있다. AI를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사업이 광주 지역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테크타운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공모 ‘국립 남도대학교’ 대상

21일 2차 후보군 선정 심의 거쳐 확정

전남 첫 의과대학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교명 공모에서 ‘국립 남도대학교’가 최고작으로 선정됐다.

17일 두 대학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교명을 공모한 결과 ‘국립 남도대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국립 전라대학교’와 ‘국립 전국대학교’, 우수상은 ‘국립 하나대학교’·‘국립 글로컬대학교’·‘국립 목포순천대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별 학내 구성원 공모에서도 순천대의 경우 ‘국립 남도대학교’가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립 전라대학교’와 ‘전남 국립대학교’, 우수상에는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국립 전국대학교’·‘국립 하나대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목포대 학내 공모에서는 ‘국립 전라대학교’가 대상, ‘국립 김대중대학교’와 ‘국립 목포순천대학교’가 최우수상, ‘국립 전국대학교’와 ‘국립 전남과학기술대학교’가 우수상에 뽑혔다.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2차 후보군으로 4건을 선정한 뒤 두 대학 구성원 투표와 통합추진위 심의를 거쳐 교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道·관광재단, 중동서 전남의 맛·멋 알려

‘케이-엑스포 두바이’ 공동 홍보관

전남도는 17일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에서 열린 ‘K-EXPO UAE(두바이)’에 참가해 중동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의 맛과 멋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일해협연안 4개 시·도(전남·부산·경남·제주)가 남해안의 관광 매력을 홍보하고,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뷰티 등 중동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대규모 한류 행사다.

16-17일 이틀간 한국 홍보관에 방문한 관광객은 10만여명으로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섬과 바다, 치유, 힐링 코스 등 계층별 다양한 여행지를 홍보, 큰 관심을 받았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이 포함된 남해안권은 기후, 자연, 먹거리, 휴양, 섬 관광 등 중동 관광객의 여행 취향과 잘 맞는다”며 “공동 홍보를 계기로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남해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예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